

# 전남도, 무장애 생활체육 환경 조성한다

## 올해 7개 사업 90억원 예산 투입 생활체육교실 운영·공공시설 확충 장애인 체력향상·건강증진 기대

전남도가 지역 장애인의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올해 7개 사업에 90억원을 투입,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선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누리도록 전문지도자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쉽게 접근하고 이용 가능한 무장애 체육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도자가 장애인복지관이나

특수학교 등으로 직접 찾아가 보치아, 스폴런 종목 등을 지도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7억원을 투입, 400개 교실을 운영해 10만여명 이상의 장애인을 지도할 계획이다.

체육종목단체, 특수학교 등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동호인 클럽활동, 생활체육 교실,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공모사업'도 시행한다. 올해 5억7000만원을 투입해 개소당 최대 400만원을 190개소에 지원할 예정으로, 전남장애인체육회를 통해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애인 개개인이 경제적 제약 없이 스포츠를 누리도록 매월 11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대상을 5~69세로 대폭 확대했다. 12억원을 투입해 총 1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9월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땀 흘려 갈 고구마 생활체육 실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과 화합의 장인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완도에서 12개 종목 2000여명 구

모로 개최된다.

무장애 스포츠 여건 조성을 위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8월 '전남장애인체육진흥센터'가 순천에 개소된다.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장애 유형별로 기초·전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고, 체력증진 교실에 참여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매년 2억원을 투입하고 4명의 전문가와 과학 장비를 운영하며, 출장 측정도 함께 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용하는 사회통합형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도 힘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현재 목포, 여수, 광양, 곡성, 고흥 등 5개소가 운영 중이다. 담양, 완도, 해남 등 8개소도 기금 44억원 등을 투입해 건립 중이다.

이외에도 기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강인중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더욱 쉽게 다가서고 건강한 삶을 누릴 기회가 많아질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등 체육복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정준호 "서방천 생태하천 복원·저심도 지하도로 건설"

정준호(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 후보는 지난달 30일 KBC가 진행한 '제22대 총선 북구갑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방천 생태하천 복원 통해 중흥동·신안동 일대 상권 활성화 △서방시장 사거리-문흥IC 저심도 지하도로 건설 등 공약과 비전을 발표했다. 1일 밝혔다.

정 후보는 "북구갑 지역의 성장잠재력은 전남대와 광주교육대, 동강대 등 대학 자원에 있다"며 "전남대 앞과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임동 복합쇼핑몰 사이에 도심형 융합 캠퍼스를 조성하고 모든 관



련 산업연구가 이곳에서 이뤄지도록 해 북구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노동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 선진화법에 전면 수용하도록 해 일하지 않는 국회는 세비를 삭감하고 주민에게 소환을 받는 제도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진숙 "여성 고용유지 위한 노동환경 개선"

광주지역 유일한 민주당 여성 후보인 전진숙(사진) 후보가 1일 "여성들의 역량이 사회발전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 극복과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성평등이 답"이라고 밝혔다.

전 후보는 "성평등한 복유립 국가의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고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80%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20% 이상 높다"며 "출생율 역시 1.6명으로 우리보다 2배가 높아 미래 국가경쟁력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에 있



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여성의 일 자리를 늘리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이고 지역발전의 핵심과제"라면서 여성정책 관련 공약으로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고용중단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확대 성별 임금격차 해소) △트름새없는 촘촘한 돌봄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북구여성비전센터 수립 등 4대 정책을 제시했다. **김은지 기자**

## 박병석 "온라인 무상교육·느린 학습자 지원센터 설립"

박병석(사진) 새로운미래 광주 북구를 후보는 1일 'EBS 기반 온라인 무상교육 실시'와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광주 내 모든 공공도서관과 학교에서 EBS 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장기적으로 EBS가 공익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의 조정과 EBS의 모든 콘텐츠를 무료화해 전 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한 "느린 학습자'는 장애



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마땅한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황으로 교육만큼은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 차원의 제도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느린 학습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윤희숙 진보당 대표 "광주서 기적의 1석 만들어달라"

차별화된 선거전략으로 새로운 진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진보당의 윤희숙(사진) 상임대표가 1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에서 '기적의 1석'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당의 22대 총선 목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5석 이상 당선으로 국민들께 사랑받는 새로운 대표 진보정당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북구를 윤민호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진보당은 고심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해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고 지역구에서는 64명의 후보가 용퇴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진보의 바람을 광주에서도 만들어 달라. 야권 심장부인 광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달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하남산단에 근로자 조식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1일 첨단산단 광주테크노파크 별관에 '간편한 아침한끼' 2호점을 열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첨단산단 근로자 조식지원센터 개소

광주테크노파크에 2호점 2000원~3000원에 판매

이달부터 첨단산단 근로자들도 '반값아침'을 먹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하남산단에 근로자 조식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1일 첨단산단 광주테크노파크 별관에 '간편한 아침한끼' 2호점을 열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간편한 아침한끼' 첨단산단점은 광산지역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아 월~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김밥, 컵밥, 샐러드 등으로 메뉴를 다양화해 하루 100명분의 아침 식사를 판매한다. 특히 구대한 음식을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준비한 재료가 소진되면 당일 영업은 조기 종료된다.

민선8기 핵심사업인 '산단근로자 조식 지원 사업' (간편한 아침 한끼)은 시중가격의 50% 정도의 저렴한 가격(2000원~3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해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과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고

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첨단산단점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출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챙겨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3월27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 문을 연 하남산단점은 12월 말까지 1만9184개의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판매하는 등 하루 평균 102명의 근로자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노병하기자**

## 광주시, 가족친화경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

희망기업·기관 선착순 모집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일과 가정, 삶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기관 10곳을 2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가족친화경영은 일과 가정을 균형감 있게 양립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가는 경영전략으로, 좋은 직장도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필수 단계이다. 특히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가족친

화 우수기업과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있어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란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은 기업·기관에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가족친화전문인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파견해 가족친화경영 제도와 설계 관련 맞춤형 상담을 1대 1로 지원한다. 상담은 △서류 및 현장 심사대비 상담

을 통한 가족친화인증 지원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도입·설계와 가족친화 문화조성 프로그램 연계 △인사·노무법규에 근거한 취업규칙·직무지침 점검 등 3단계로 진행되며, 기업당 최대 5회까지 탄력적으로 제공한다.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지난해부터 변경된 가족친화인증 지표로 인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유효기간 연장과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isj4078@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노병하기자**